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avilion Energy sees need for 100 new LNG bunker vessels

싱가포르의 Pavilion Energy에 따르면, LNG 연료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간 100척 이상의 LNG bunker선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2030년에는 LNG bunker 수요가 현재 수준 보다 30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싱가폴은 bunker 시장 전체 규모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Freeport LNG gets more time for Train 4 expansion

미국의 규제당국이 Freeport LNG의 텍사스 내 설비 증설을 위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 지연의 이유는 COVID-19가 야기한 시황 악화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Freeport LNG는 3년의 기간 연장을 통해 2026년 5월 17일까지 설비 증설을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됨. (Upstream)

대선조선 인수, 요는 '돈'

매각 진행 중인 대선조선이 공개경쟁입찰을 본격화한 가운데 예비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의 인수자금 마련이 매각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앞서 Stalking Horse(현대중공업의 대우인수 딜 적용) 방식으로 단독 진행하던 협상이 공개입찰로 전환하며 새로운 원매자가 등장했지만 두 곳 모두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파나시아, 연간 최대 1조원 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설비 전문 기업 파나시아가 최근 급증하는 스크러버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설 투자를 결정, 제 2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연가 최대 1조원 규모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보도됨. 파나시아는 2018년 스크러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약 2년만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8%까지 확보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오일뱅크 그린뉴딜 사업 진출..."수소충전소 180개 가동"

현대오일뱅크는 2025년까지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충전소를 80개소 운영하고, 2030년에는 최대 180개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됨. 정부는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수소충전소를 2025년 450개소, 2030년 660개소, 2040년 1200개소 이상 확충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이 큰 방향에 맞춰 자체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와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수소충전소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국내 최초 구축함 성능개량 성공적 수행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에 이어 구축함 성능개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수상함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발휘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3척의 구축함(KDX-1) 성능개량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을 지난 9일 최종 인도했다고 밝힘. (선박뉴스)